

市·道교육청 1회 추경 3천428억·5천10억 증액

본예산 대비 각각 12.1%·11.3% ↑
고유가 등 대응...학교운영비도 인상
미래 교육 중점...교육행정통합 반영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증정 정세 불안 장기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3천428억원, 도교육청은 5천1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번 추경으로 시교육청 총 예산은 본예산 2조8천256억원 대비 12.1% 늘어난 3조1천685억원 규모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천188억원, 본예산에 미편성된 지자체 전입금 1천억원, 기타 수입 222억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미래 학습역량 강화 ▲안전한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광주·전남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세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인건비 등 필수사업도 반영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교육현장 지원 예산 278억원을 수립했으며, 학교운영비는 180억원을 증액해 학급당 평균 2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AI·디지털 교육 전환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미래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613억원을 투입한다.



형형색색 우산 행렬 기상청 예보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 2일 오전 광주 북구청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조영권기자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되는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에 대비해 시스템 구축과 통합교육청 CI 개발 등에 21억원을, 안정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예비비 104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명예퇴직수당 9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광주시 법정전입금 1천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1천302억원을 반영해 교육현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오는 4일 광주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 15일 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심의·의결, 17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교육청 추경안의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천77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4억원, 기타 이전수입 8억원, 기금전입금 105억원 등이다.

추경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의 올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조4천410억원보다 11.3% 증가한 4조9천420억원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은 본예산 편성 당시 큰 폭의 예산 감액으로 제기됐던 미래교육사업 위축 우려를 불식하고, 교육 서비스 질 향상과 미래교육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운영난 해소를 위한 민생 안정 예산 500억원을 배정해 학교 기본운영비를 학급당 50만원 인상하는 등 389억원을 수혈하고 79억원을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에 투입한다.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7억원, 통합협의체 운영 3억원, 통합교육청 CI 개발 및 정책홍보 3억원, 공무원증 재발급 3억원 등 초기 비용 29억원도 편성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확정된다. /박선욱기자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출범...내년 신입생 모집

교육부 승인...단과대학 보건대학 운영
호남 최대·전국 3위 규모 간호 인재 거점

조선대와 조선간호대의 통합이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며 호남 최대이자 전국 3위 규모의 간호 양성 기반을 갖춘 보건의료 특성화 통합대학이 본격 출범한다.

2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양 대학은 2020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교직원과 학생 의견 수렴과 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12월 15일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며 호남 최대이자 전국 3위 규모의 간호 양성 기반을 갖춘 보건의료 특성화 통합대학이 본격 출범한다.

이번 승인에 따라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한 독립 단과대학 '간호대학'이 출범하게 되며, 오는 2027년부터 통합대학 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

고 교육과정과 조직·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에 들어간다.

입학정원 232명 규모로 운영될 통합 간호대학은 전국 3위, 호남권 1위 수준(4년제 대학 기준)으로, 보건의료 교육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은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 보건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양 대학은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 역량과 데이터 기반 판단 능력을 겸비한 실무형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진로 확장과 교육 창업 연계를 통해 간호 분야의 산업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 과 정부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이번 통합은 조선대학교의 보건의료 분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웰에이징 글로벌대학

전략과 연계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은 "양 대학의 통합은 오랜 숙원이자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기반 간호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광주·전남 올봄 평균기온 13.8도 '역대 3위'

올해 봄철(3-5월) 광주·전남 지역 평균기온이 역대 세 번째로 높았으며, 단기간 비도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봄철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 3-5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13.8도로 역대 3위를 기록했으며 평년(12.6도)보다 1.2도, 지난해(13.1도)보다 0.7도 각각 높았다.

이는 해당 기간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면서 이상 고온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4월15일 강진(27.2도), 5월17일 완도(30.7도)·장흥(31.7도), 5월18일 광주(32.7도)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일 최고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봄철 강수량 역시 369.7mm로 평년(307.7mm)보다 62mm, 지난해(296.4mm)보다 73.3mm 많았다.

이날 기상청 관계자는 "봄철 내린 비가 여름철 가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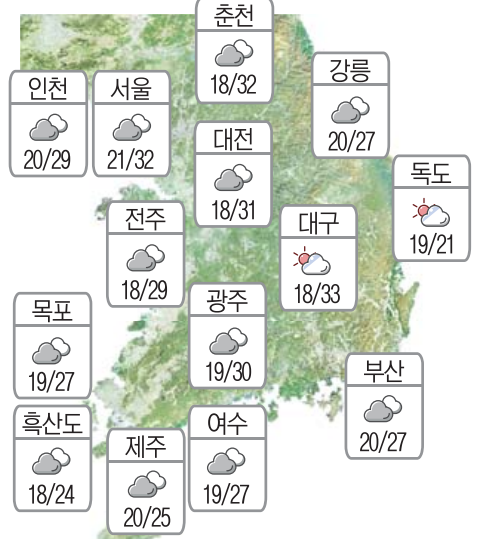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9:43 🌧달돋이 22:24 달짐 07:08

●광주·전남 날씨

| | | | | | |
|----|------|-------|-----|----|-------|
| 광주 | 흐림 | 19/30 | 장성 | 흐림 | 17/29 |
| 목포 | 흐림 | 19/27 | 보성 | 흐림 | 16/29 |
| 여수 | 흐림 | 19/27 | 함평 | 흐림 | 17/28 |
| 나주 | 흐림 | 17/30 | 순천 | 흐림 | 19/30 |
| 완도 | 흐림 | 18/30 | 영광 | 흐림 | 17/26 |
| 구례 | 구름조금 | 18/31 | 진도 | 흐림 | 17/26 |
| 강진 | 흐림 | 18/30 | 흑산도 | 흐림 | 18/24 |
| 해남 | 흐림 | 17/29 | 고흥 | 흐림 | 18/29 |
| 광양 | 흐림 | 19/30 | 담양 | 흐림 | 18/30 |

●전국 날씨



●바다 날씨

| 위치 | 오전/파고(m) | 오후/파고(m) |
|-----------|----------|----------|
| 서해 앞바다 | 0.5-0.5 | 0.5-0.5 |
| 남부 먼바다(북) | 0.5-1.0 | 0.5-1.0 |
| 남부 먼바다(남) | 0.5-1.5 | 0.5-1.5 |
| 남해 앞바다 | 0.5-1.0 | 0.5-0.5 |
| 서부 먼바다(동) | 1.0-3.0 | 0.5-1.0 |
| 서부 먼바다(서) | 1.0-2.0 | 1.0-2.0 |

●물때

| 지역 | 만조 | 간조 | 만조 | 간조 | 만조 | 간조 |
|----|-------|-------|-------|-------|-------|-------|
| 목포 | 04:02 | 09:18 | 10:27 | 04:45 | 11:05 | 05:51 |
| | 15:43 | 21:01 | 23:09 | 16:25 | 23:54 | 17:15 |

●생활정보지수

👉 니들이 80 🚗 세차 80
여름 떠나요 세차하기 좋은날
👉 빨래 70 🏃 운동 4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 4일(목) | 5일(금) | 6일(토) |
|------------------|------------------|------------------|
| ☁(20/27) 흐림 | ☁(18/28) 흐림 | ☀(17/28) 구름조금 |
| 7일(일) | 8일(월) | 9일(화) |
| ☀(16/27) 구름조금 | ☀(16/25) 구름조금 | ☀(15/25) 구름조금 |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복개상가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제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38
개설일 : 공식개설일 1973년

· 점포수 : 260곳
· 시장면적 : 10,582㎡

· 주요취급품목
- 생식품(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반찬, 젓갈) 등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U**

광고문의 : 062)650-2099